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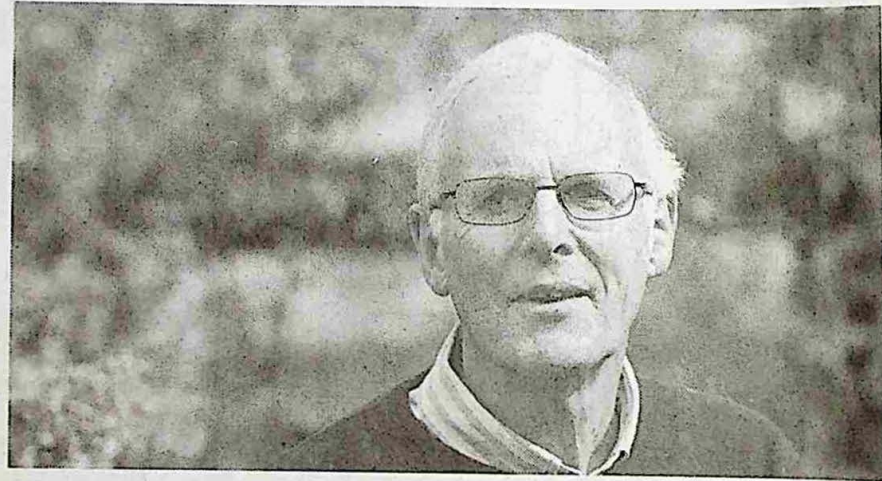
이 사람 영국 '사회혁신 권위자' 로빈 머리

“시민·정부·기업 힘모아 사회적 경제를”

“혁신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근 방한한 영국의 대표적 사회혁신센터인 '영파운데이션'의 펠로이자 영국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로빈 머리(사진)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한계가 드러나는 가운데, 대안을 찾는 사회적 혁신과 관련해 근본적 휴머니즘을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넘어 새로운 경제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사람 위주의 경제가 주가 되고 지금까지 대세였던 사적 시장 영역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머리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예로 들어 “정부가 돈을 주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감시하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만약 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스페인 여행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여행에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사람과 가정을 중심으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인텔·희망제작소가 주최한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 참석차 방한해, 시장과 가계, 정부 및 시민단체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이른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부상을 주장했다. 그는 10일 저녁 7시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왜 지금 새로운 사회경제인가’를 주제로 강연도 한다.

‘아시아 엔지오 서밋’ 참석·방한 “사람 위주의 경제로 전환돼야” “대가성 없는 기업 기부 괜찮아”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강단에만 머물지 않고 공정무역단체를 만들어 설탕, 초콜릿, 커피 같은 공정무역회사 등이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는 런던시 등 영국 지방정부의 정책을 자문했고,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의 전문가다.

한편,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의 ‘기부금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가 대기업의 돈을 기부받았다고 공격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모델만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리는 “기업이 시민단체에 돈을 주면서 ‘이런 일을 해달라’고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명확한 목표와 동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기업이 ‘우리의 지향과 맞으니 돈을 내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박 후보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새로운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사진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러 한류팬들 “한국 문화취향 좀 획일적”

한국문화센터 11명 첫 서울 여행 “가족사랑 등 전통 살아 있어”



한국 음식이 깔끔하고 맛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팬들이지만, 한국 사회에 아쉬운 점도 있다고 했다. 바로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였다. 우리나라

길을 찾아서

정해숙-아름다운 선생님의 멘토 103

‘3당합당’의 파행과 진통 끝에 1993년 집권에 성공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초반 잠시 개혁성을 보이려는 듯이 강경보수 일변도로 치달았다.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들어선 첫 민주정부라고 홍보했던 문민정부는 기대와 달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96년 여름 연세대에서 열린 8·15 통일대추전 및 범민족대회 이후 벌어진 대규모 폭력 시위를 이유로 대법원은 97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학생들의 탈퇴를 유도했고, 탈퇴하지 않으면 무조건 잡아들였다. 한총련 간부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배령을 내렸다. 수배된 오창규 남총련 의장 등 한총련 간부 일부가 98년 8월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사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복직을 한 와중에도 나는 서



정년퇴임한 직후인 1999년 10월12일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서 열린 박관현장학재단 주최의 ‘박관현 열사 17주기 추모식’에서 필자(오른쪽)가 이방기(왼쪽) 이사장으로부터 ‘제4회 관현민주대상’을 받고 있다.

5.18 희생에 빛진 교육민주화...박관현·윤상원상 수상

울에 갈 때마다 조계사에 들러 농성중이던 한총련 간부들을 찾아 위로하곤 했다. 한번은 학생들에게 이런 권유를 했다. “조계사에 있으니 절을 좀 해보면 어떨까? 조직생활을 하려면 자기를 낮추는 훈련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우상에 대해 절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총련 간부들이니까 자기를 낮추는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절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 다시 방문했을 때 생각이 나서 “그동안 절을 하면서 수행했나”고 물었다. 그런데 의외로 몇몇 학생이 “저 친구는 3천배도 했어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하며 보고하듯 다투어 말했다. “수고들 했네. 짧은 말로 격려했지만 내심 대견했다. 수배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는 데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혼자 생각했다.

정년퇴임 직후인 99년 10월 나는 박관현장학재단(이사장 이방기)으로부터 ‘관현민주대상’을 받았다. 조비오 신부, 강신석 목사, 지선 스님에 이어 네번째 수상자였다. 시상식은 박관현 열사가 잠들어 있는 광주 망월묘역에서 17주기 추모식과 함께 열렸다. 91년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마친 이듬해 ‘제2회 윤상원상’ 사회운동부문 개인상을 받은 데 이어 두번째 민주열사상이었다.

박관현과 윤상원. 두 사람은 80년 광주민중항쟁의 한복판에서 광주를 지키기 위해 군부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하다 숨을 거둔 인물들이다. 두 사람 모두 노동자 야학인 ‘들불야학’의 교사로서 힘겨운 노동으로 지친 상태에서 배움에 목말라하는 어린 노동자들을 가르친 순수한 청년들이었다. 박관현은 80년 다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5·18’ 직전까지 광주시민과

보도하지 않는 광주 문화방송국이 시민들에 의해 불에 탄 뒤 광주시내가 고립되자 <투사회보>를 만들어 신군부 학살 실상과 광주의 처절한 상황을 알렸다.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하자 시민항쟁 지도부를 규합하고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그는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 진압 때 마지못해 저항하다 30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의 뜻을 기리기 위한 상을 내게 준 뜻은 전교조 활동을 통해 교육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럼에도 아까운 두 젊은 이들의 희생이 떠올라 상을 받는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2000년 초 비전향 장기수 어른들의 북한 송환 문제가 논의된 끝에 그해 9월 성사됐다. 6월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5개항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나는 서울 낙성대 쪽에서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장이 운영하던 ‘만남의 집’, 광주 두암동의 ‘통일의 집’과 산수동 일대의 장기수 어른들을 전교조 선생님들과 함께 가끔 찾아뵙고 인사드렸다. 9월2일 북한으로 가기 며칠 전 어르신들을 음식점으로 모셔 마지막 석별의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통일의 노래’를 같이 부르며 아쉬운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연로한 장기수 63명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다. 93년 리인모 선생이 첫 물꼬를 튼 데 이어 두번째 대규모 송환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 추가 송환이 이뤄

지난 2월 러시아에 있는 11명의 2명의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 한국에 처음으로 찾아왔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국청 소년문화교육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는 이들이었다. 지난 5일 견학차 한겨레신문사를 찾아온 이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재러시아 동포 3세인 손 아나(판매 직원)는 "한국엔 옛 전통이 살아 있는 것 같았다"며 그 사례로 연장자에 대한 예의나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 같은 것을 꼽았다. 이런 것은 러시아 사회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한국 동포 사회에서도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연구원인 율리아 역시 "러시아에서 예술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전통 무용이나



공연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이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케이팝과 티브이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였다. 송승헌이나 <커피프린스>의 김재욱에 매료된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이 센터에 찾아왔다. 이번에 한국에 올 수 있었던 11명은 전체 수강생 130명 가운데 한국어나 관심의 수준이 가장 높은 이들이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였을까? 음식이었다. 삼점 점원인 타냐는 '비빔밥'이라고 했고, 동포 3세인 고(가이) 타냐(회계사)는 삼겹살구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개인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요리사인 올가도 "한국 젊은이들의 취향은 좀 획일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이번 방문은 윤희만 센터장이 러시아 학생들에게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달라고 대한항공 모스크바 지점에 제안해 성사됐다. 대한항공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서울시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엘지가 전원의 대여 스마트폰을 제공했다.

윤 센터장은 "이들은 문화 사절단과 같은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기회가 정례적으로 주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학생들의 반독재부정을 수모했다. 양생 이후 내내 오빠 생일을 하다가 82년 4월 내란중요임무중사 혐의로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은 그는 50일간의 옥중 단식투쟁 끝에 눈을 감고 말았다. 윤상원은 80년 5월 군부세력과 유착해 광주의 실상을 제대로

명의 비전향 장기수 어른들이 외롭게 남아 있다.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 전교조 위원장(구술정리 이경희)



NGO 게시판

◇ 여성환경연대는 18일부터 새달 15일까지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에서 대사 증후군 건강매니저 양성 강좌를 연다. 수강료는 10만원. (02)2677-7944.

제462회 LOTTO 6/45 복권

| 당첨번호 | 3 | 20 | 24 | 32 | 37 | 45 |
|-----------|-----------------|----|----|----|----|----|
| 2등 보너스 숫자 | 4 | | | | | |
| 1등 총 당첨금 | 11,868,474,376원 | | | | | |
| 1등(1개입당) | 1,483,559,297원 | | | | | |
| 2등(1개입당) | 50,719,976원 | | | | | |
| 3등(1개입당) | 1,418,996원 | | | | | |
| 4등(1개입당) | 50,000원 | | | | | |
| 5등(1개입당) | 5,000원 | | | | | |

응답의 조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은 삶이 참으로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되(마 7:7), 믿음과 사랑으로 울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것은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변함없이 기도하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주 찾아가 원한을 풀어주기를 강청하니 이를 들어주는 것을 보니다(눅 18:1-8). 하물며 사랑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하는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 재복 목사
www.manmin.org 02-818-7000

한국, 기능올림픽 3연패...17번째 우승

런던대회서 금 13개로 일본 제쳐
한국이 4일부터 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41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17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해 '기술 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9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런던 엑셀센터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따내 일본(금 11, 은 4, 동 4), 스위스(금 6, 은 5, 동 6)를 누르고 종합 우승했다. 한국은 1967년 16회 스페인 대회를 시작으로 모두 26차례 출전해 17번째 정상에 올랐고 2007년 일본 대회, 2009년 캐나다 대회에 이어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세계 50개 나라 949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 한국은 40개 종목 가운데 컴퓨터정보통신 등 39개 종목에 43명의 선수가 나서 기량을 겨뤘다.

한국팀 대표단장인 송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종합 우승이 확정된 뒤 "기술

강국 코리아의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다시 알렸다"며 "숙련 기술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인 1조 경기인 모바일로보틱스 분야에서 우승한 전북 남원 용성고의 공정표, 배병연 선수는 "로봇을 제어하는 분야에서 앞으로 전문성을 더 키워나가고 우리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 두 선수는 이미 지난 8월 삼성전자에 채용이 확정됐다.

기능올림픽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만 22살 이하(통합제조와 메카트로닉스는 만 25살 이하) 젊은 기능인의 잔치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으로 구현하는 숙련기술과 일부 서비스업의 세련미를 겨루는 종합대회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금메달 6720만원, 은메달 3360만원, 동메달 2240만원의 상금과 훈장이 주어진다. 런던/연합뉴스

인사

- 한국가스공사 △상임이사 김기만 지원본부장
- 한국일보 △골프매거진 편집장 정동철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병윤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업무이사 김재문
- 중소기업중앙회 <승진> △회원지원본부장 남명근 <전보> △보증공제사추진단장 김종배 △대구경북 지역본부장 소한섭 △전북 "유영호 △편집국장 김승환 △정책총괄실장 윤위상 △교육기획실장 강명구

장근석 "내가 할리우드 못갈 것 같아요?"

부산영화제 동서만남 이벤트
미국배우 로건 레먼과 한자리



"내가 할리우드 못갈 것 같아?"
최근 뜨거운 한류스타로 급부상한 장근석(24·사진 오른쪽)이 할리우드 차세대 스타 로건 레먼(19·왼쪽)을 옆에 두고 팬들을 향해 던진 도발적인 너스레였다. 그는 "이제 아시아의 왕자에서 '월드 프린스'(세계의 왕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환호도 받았다.

장근석과 로건 레먼이 9일 부산 해운대 야외무대에서 16회 부산국제영화제 이벤트로 열린 '이스트&웨스트, 오늘의 스타가 말하는 내일의 영화'에서 만났다. '동서양 미남배우'들이 소탈한 대화를 나눈 이 행사에 2000여 명의 팬이 몰렸다. 새달 개봉하는 영화 <너는 펫>에 김하늘과 같이 출연하는 장근석과, 12일 국내에서 개봉하는 <삼총사 3D>에 달타냥으로 나오는 로건 레먼은 아역배우에서 성인배우로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

장근석은 아역배우 당시 고층에 대해 "할리우드처럼 아역배우를 배려해 학교에 가

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없다. 다음 날 아침까지 촬영하다 학교에 빠지고 또 촬영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한국에 처음 온 로건 레먼은 "나도 연기를 하며 자랐지만 학교 수업을 비롯해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며 "미국에선 아역배우들이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지 않아 (촬영장에 남아) 다시 연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고 집이나 학교로 돌려보내는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장근석은 "부산영화제에 처음 왔는데, 로건 레먼이란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됐다"며 "이 친구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내가 불렀던 노래들을 유에스비(USB)에 담아 줄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사진 연합뉴스

조용기 회장·조민제 사장 재선임

국민문화재단은 임기가 만료되는 국민일보 조용기 회장(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위사진)과 조민제(아래) 대표이사 사장을 재선임하고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를 신임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 이사일동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조용기 목사와 대표이사 조민제 사장을 절대적으로 신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동정

● 최불암 이하늬는 7일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알림

◇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홍순영)은 오는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접경·낙후지역(강화, 옹진, 연천)의 수도권 제외에 관한 공동토론회'를 연다.

꽃긴소식

- ◆ 남승순씨 별세: 이영식(서예가)씨 아내, 용석(〈MBC〉서울경인지사장) 은석(전 서울시의원) 원석(사업)씨 모친=9일 0시30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2)2227-7580.
- ◆ 김우석씨 별세: 희상(우정화 부장) 준상(우사연구회)씨 부친, 전병서(현대건설)씨 장인=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오전 5시. (02)2227-7550.
- ◆ 서인석(전 양화초 교사)씨 별세: 명원(삼성화재 건설SOC보험부 부장) 대원(신정초 교사) 신원(리딩클럽학원 원장) 혜은(선유고 교사)씨 부친, 김항렬(현대건설 해외영업본부 부장)씨 창
- 인, 김현실(주부) 유경희(정목초 교사) 김지영(간호사)씨 시부=9일 오전 1시50분 여의도 성모병원. 발인 11일 오전 5시30분. (02)3779-1918.
- ◆ 윤순옥씨 별세: 임용재(에이씨엠 대표) 명재(타이코코리아 부장) 은숙(말레이시아 거주)씨 모친=8일 오전 1시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30분. (031)787-1509.
- ◆ 박영례씨 별세: 손경식(우리세무법인 대표)씨 모친, 박성영(송파 재향군인회장)씨 장모=9일 오전 11시1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2)3010-2265.
- ◆ 이난희씨 별세: 김근상(대한성공회 의장주교)
- 씨 모친=8일 오후 1시50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2)763-8427.
- ◆ 김호근씨 별세: 박병근(삼성LED 자금그룹 부장)씨 장인=9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2)3010-2000.
- ◆ 김규영씨 별세: 진기(중앙 지앤이 대표) 태현(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씨 부친=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2)2227-7587.
- ◆ 장세정씨 별세: 덕진(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인천(개인사업)씨 부친, 임도연(우리는행 차장)씨 장인=9일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2)3410-6916.